

# 나노라 덴리시·사쿠라이시

제 14호

- 나라 역사 예술 문화촌 .....1p
- 덴리 대학 부속 덴리 참고관 .....2p
- 장타코 덴리점 .....3p
- 오미와 신사·로제노 카빙 .....4p



사진 : 오미와 신사

# 역사를 미래로 이어가다

## — 나라 역사 예술 문화촌

저는 나라국립박물관의 해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문화재 보존 수리소 특별 공개' 이벤트에 참가하여 불상 복원의 현장을 직접 보는 인상 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베이징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대부분이 훌륭한 경험이라며 자신도 참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이런 부정기적으로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한 이벤트에 참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베이징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현 덴리시에 개관 예정인 '나라 역사 예술 문화촌' (이하 문화촌) 이 1년에 걸쳐 불상 등의 복원 현장을 해설과 함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 나라에 왔을 때 견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촌'에 설치 예정인 '복원 공방'은 불상과 같은 조각품의 복원뿐만 아니라, '회화·서적 등', '역사적 건조물', '고고유물'과 같은 4가지 분야의 문화재 복원 작업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에서도 처음 쾌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에 3년간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역사'와 '문화예술'은 나라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현의 국보, 중요문화재 건수는 1,327건으로 일본에서 3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각(대부분이 불상) 및 건조물의 국보 건수는 일본 1위입니다. 특히, 나라에는 '쇼쇼인(정창원)보물'을 비롯한 중국 당나라 시대(618-907년)의 문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불상, 건조물, 행사 등에도 당나라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도(古都)나라는 많은 중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동경의 도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상 복원 현장 이미지 (사진 제공 : 나라 역사예술문화촌 정비추진실)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문화촌'은 나라현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촌 개관 후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흥미가 생겨, 나라현청 '나라 역사예술문화촌 정비추진실'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문화촌'의 설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촌'은 나라현의 역사예술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설치되어, 투시도처럼 여러 시설과 다채로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실내전시, 문화체험, 정보발신 기능을 하며, 복수의 건물로 구축된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단기 체류를 원하는 손님은 인접한 호텔로 99객실을 갖추고 있는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나라 덴리(2022년 봄 개업 예정)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엔구장의 그라운드 면적은 약 1.3만㎡인데, '문화촌'의 부지면적은 약 3만㎡입니다. 나라현은 2019년 덴리 대학과 연계협정을 맺는 등 현내외 다양한 기관, 단체와 문화촌의 교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리 대학 도서관이나 덴리 대학 부속 덴리 참고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기획전시도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촌'에서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현이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하바타쿠 나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아를 대상으로한 아트 프로그램을 문화촌에서 실시할 예정이므로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현산 농산물과 전통공예품 등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나라현산 식재료를 이용한 식당, 요리교실을 열 수 있는 실습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홀이나 세미나실 등도 완비되어 있어, 앞으로 문화촌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문화, 예술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후, 초심자인 제가 옳은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꼭 문화촌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야마토국(나라)에 새로이 날개를 펴는 문화촌이여'**



주소 : 나라현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나라현 문화·교육·생활창조부 나라 역사예술문화촌 정비추진실  
<http://www.pref.nara.jp/46785.htm>



# 역사를 소중히 — 덴리 참고관의 인상

나라현 덴리시에 있는 덴리 대학 부속 덴리 참고관(이하: 참고관)은 세계 각지의 생활문화 자료, 고고미술 자료를 수집, 연구,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2020 년은 참고관 창립 90 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건물이 매우 개성적입니다. 저는 일년 전에 일본인 친구와 함께 참고관을 견학하고 그 훌륭함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참고관 학예사인 하야사카(早坂)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민족학 자료를 수집, 연구,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국립민족학박물관(오사카)은 1974 년 창설되었고, 참고관은 1930 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90 년간 축적되어 온 참고관의 수집품과 기증품을 합쳐 현재 소장품이 30 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설 전시품은 3000 점 정도로 '세계의 생활문화', '세계 고고미술' 로 나누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생활문화' 전시 구역에서는 일부 전시품이 만들어진 시대를 재현한 코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 방법은 관람자에게 생생함 넘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층의 제 3 전시 코너 '후쿠로쿠주(福祿壽; 행복, 부, 장수)'에는 1930 년대 베이징 거리에 사용되었던 가게 간판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나이가 지긋하신 한 관람객이 감개무량한 얼굴로 '그립네요. 설마 여기서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야사카 씨가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젊은이가 '재미있네요.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지만 이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라며 흥미롭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십년도 더 이전의 간판 실물을 보며 당시 베이징 거리의 모습을 느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베이징 거리의 간판



삼채 연전마 (8세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시품은 3 층의 중국 고고미술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당삼채(唐三彩)의 실물입니다. '당삼채'는 고대 중국(당나라 시대)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로, 백색의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구운 후 녹색이나 갈색, 또는 남색, 황색 등의 유약을 발라 독특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말'이나 '각단(하루에 만 리를 가고 각 지방의 말이 다 통한다는 상상의 동물)', '삼채신장(신장; 불교의 수호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소 색이 바래긴 하였지만 1200 년 전에는 색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관 정면

이 작품은 아마도 먼 길을 건너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인 고도(古都) 나라로 왔을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밖에 보지 못했던 '당삼채'를 나라현의 덴리 참고관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또한, 참고관 카운터에는 7 개 국어의 무료 팸플릿이 준비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관 홍보담당 나카무라(中村) 씨에게 전화로 말씀을 여쭙어 본 바에 의하면, 참고관은 상설전시 이외에도 특별전, 기획전, 공개 강연회, 뮤지엄 콘서트,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청 지원 사업을 비롯해 덴리시나 지역간의 다양한 연계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분야에서 유명한 '나라현립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부속 박물관'과 덴리시 교육 위원회와의 공동전, 고문서 장서에 있어 일본에서 훌륭한 수준을 자랑하는 '덴리 대학 부속 덴리 도서관'과 공동 개최전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에 따르면, 2018 년 상하이 공예미술 박물관 부관장 등 중국인 5 명이 참고관의 '중국의 풍속 인형 - 근대 이후의 토우와 회양목 인형 -' 전시를 관람했을 때, '회양목 인형은 중국에서도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평가 하였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씨는 '해외 현지분들의 의견을 통해 새롭게 참고관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카무라 씨는 '나노라'의 독자들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국내외에서 나라현을 찾아 주실 때에는 꼭 저희 참고관에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주소 : 나라현 덴리시 모리메도초 250 (〒632-0035 奈良県天理市守目堂町 250)
- 오시는 길 : JR・긴테쓰 덴리역에서 도보 20 분
- <https://www.sankokan.jp/>
- 사진 제공 : 덴리 대학 부속 덴리 참고관

# 타코야키, 신사, 스위트 : 덴리시 · 사쿠라이시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하루

이번에는 덴리시와 사쿠라이시를 무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덴리시에 있는 타코야키 가게 '장타코 덴리점 (ジャンたこ天理店)' 을 비롯하여, 사쿠라이시에 있는 오미와 신사 (大神神社), 케이크와 양과자 등을 파는 스위트샵 '로제노 카빙 (ローゼの菓瓶)' 을 소개합니다.

## 타코야키 :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간사이 지역의 음식이라고 하면 '타코야키' 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나 미끌미끌한 생김새 때문에 문어 (타코) 를 먹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에 오기 전까지 문어를 먹을 기회가 없어서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타코야키를 먹어 보았고, 그 뒤로 일본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덴리시에 있는 타코야키 가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코야키' 는 밀가루와 맛국물 등을 넣어 만든 반죽에 문어나 파 등의 속재료를 넣어 동그란 모양으로 구워 소스를 뿌려 먹는 향토요리입니다. 타코야키의 기원은 오사카로 알려져 있으며, 1935 년에 오사카부 니시나리구 '아이즈야 (会津屋)' 의 창립자인 엔도 도메키치 (遠藤留吉) 씨가 고안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간장을 뿌려 먹었으나 종전 후 돈가스 소스와 중농 소스 (겉쪽함이 우스터 소스와 농후 소스의 중간 정도인 소스) 가 발명되면서 소스를 뿌려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에서 찾아가 '장타코 덴리점' 은 헐리우드 소스와 카레 소스 등 다양한 소스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장타코 덴리점

'장타코 덴리점' 은 1986 년에 개업하였습니다. 본점인 덴리점 이외에도 나라 이치조점과 오사카의 이마가와점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이나 출연했을 정도로 인기있는 곳입니다.



## '장타코 덴리점' 인터뷰

이번에는 '장타코 덴리점' 의 스키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 1. '장타코' 의 매력을 알려 주세요.

'장타코' 는 주문을 받고 나서 타코야키를 굽습니다. 굽는데 시간이 20 분 정도 걸리지만 방금 막 구운 타코야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스 종류가 많은 것도 매력입니다.

### 2. 가장 인기 있는 소스는 무엇인가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기본 소스입니다. 대부분의 손님께서 '소스 장타코' 를 주문하십니다. 소스와 맛간장을 추천합니다.

### 3. 외국에서 오는 손님도 계신가요?

유럽, 미국 등에서 오시는 분은 적지만, 합숙 등으로 덴리에 오시는 대만, 한국분들 등 아시아권의 손님이 꽤 오십니다.

### 4.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이 자주 오시나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긴키지방은 주로 오사카, 미에현에서 오십니다.

### 5. 타코야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사이 지역 출신에게는 매우 친숙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꼭 먹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음식이라는 점이 타코야키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타코 덴리점' 에 들어간 순간 타코야키 소스의 냄새가 풍겨 옵니다. '장타코' 에는 소스 이외에도 새콤한 폰즈 소스, 겨자 마요네즈 소스 등 16 종류의 소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카레 소스와 헐리우드 소스의 맛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소스와 카레 소스, 겨자 명란 마요네즈 소스를 맛보았는데, 겉은 바삭바삭, 속은 몽글몽글한 것이 매우 맛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소스가 이상적인 타코야키는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다양한 맛의 타코야키를 맛보는 재미도 있고, 16 종류 중에서 원하는 소스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세트 메뉴도 있어서 가게에서 여러 가지 조합의 타코야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타코야키의 열렬한 팬분들께도, 아직 타코야키를 드셔보지 않은 분들께도 '장타코' 의 타코야키를 추천합니다.

# 오미와 신사 : 신비한 경험

일본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사 참배는 저에게 흥미로운 문화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사쿠라이시의 오미와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미와 신사는 미와산의 신 '오모노누시노오카미 (大物主大神)' 를 모시는 신사로 본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오미와 신사의 신관께서 배례전을 비롯하여 '미노카미 스기 (삼나무)', 사이 신사 (狹井神社), 오미와노모리 전망대, 구에히코 신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1664년, 도쿠가와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 (徳川家綱) 에 의해 재건된 배례전은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력 있는 배례전을 참배하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하였습니다.



배례전 부근에는 부적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슈인 (신사나 절을 참배하고 받을 수 있는 목서나 도장) 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제가 지참한 고슈인 수첩에 '야마토노쿠니 이치노미야 (大和国一之宮)', '오미와 신사 (大神神社)' 라고 미리 써 놓은 고슈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슈인 수첩을 볼 때마다 오미와 신사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점괘를 뽑으니 '말길 (末吉)' 이 나왔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것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풀이가 적혀 있어 재미있습니다.

배례전 앞에 있는 '미노카미 스기' 삼나무는 오모노누시노오카미의 화신인 백사 (흰 뱀) 가 삼나무의 껍을 드러내었다고 믿어 미노카미 (巳之神; 뱀의 신) 스기 (杉; 삼나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뱀은 친숙한 의미를 담아 '미상 (巳さん)' 이라 불리며, 좋아하는 음식인 달걀을 공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배례전을 떠나 오모노누시노오카미의 혼을 모시는 사이 신사로 향합니다. 취재를 갔던 날은 오봉 휴가 (일본의 양력 추석에 해당) 였기 때문에 참배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배례전 옆에는 신에게 바치는 물이 솟아 나오는 '구스리이도' 로 불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구스리이도의 물은 만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누구나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물을 마셔 보았는데 깨끗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끓이지 않은 생수이기 때문에 빨리 마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미와노모리 전망대에서는 야마토 삼산 (우네비야마, 미미나시야마, 아마노카구야마) 을 볼 수 있는데다가 풍부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절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에히코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구에히코 신사는 구에비코노미코토를 모시는 신사로 '고사기 (古事記)' 에는 세상을 잘 아는 지혜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학, 수험합격, 취직 등을 기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올빼미를 모티브로 한 소원을 적는 에마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오미와 신사를 참배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층 신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 '로제노 카빙' : 느긋하게 케이크를 맛보며 홍차를 즐기다

아일랜드는 홍차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홍차는 18 세기 아일랜드에 전해져 홍차 문화가 발달하였고, 현재 홍차는 맥주보다 더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홍차와 가향차뿐만 아니라 과자와 케이크도 자주 먹으며, 수도 더블린에서는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쿠라이시에 있는 '로제노 카빙' 이라는 가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귀여운 연분홍 빛의 건물인 '로제노 카빙' 안으로 들어가니 예쁜 디자인의 케이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춘 '복숭아 쇼트 케이크', '프루트 바스켓', '독일풍 치즈 케이크' 등이 매우 맛있어 보여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맛의 도너츠와 쿠키도 판매하고 있어 선물용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는 예스러운 얼그레이부터 달콤한 딸기티 등 차 종류도 많았습니다. 커피, 주스도 있습니다.

2 층에 올라가면 멋진 카페 공간이 있어, 포장뿐만 아니라 가게 안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문한 '캐러멜 포와르' 와 얼그레이는 생각했던 대로 아주 맛있었으며 캐러멜의 달콤함과 얼그레이의 은은한 감귤향과 홍차의 맛이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이나 달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들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나노라 「奈の良」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 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  
 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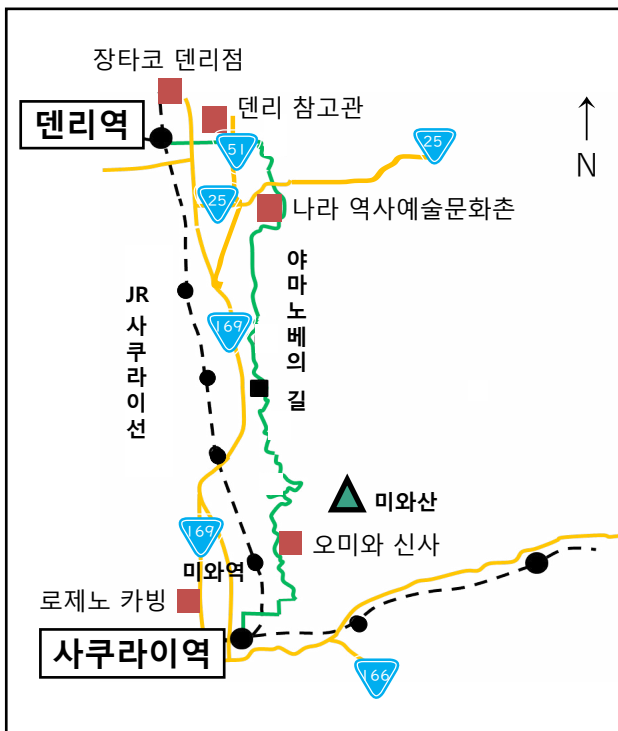
오춘란 (Chunlan Wu) (사진 왼쪽)

오사카 등지로 옮겨 가는 나라 출신의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제 주  
 변에는 도쿄에서 나라로 옮겨 오는 중년의 일본인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 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  
 립니다. 저는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고도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  
 한 존재임을 느꼈기 때문에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크란시 케이티 (Katie Clancy) (사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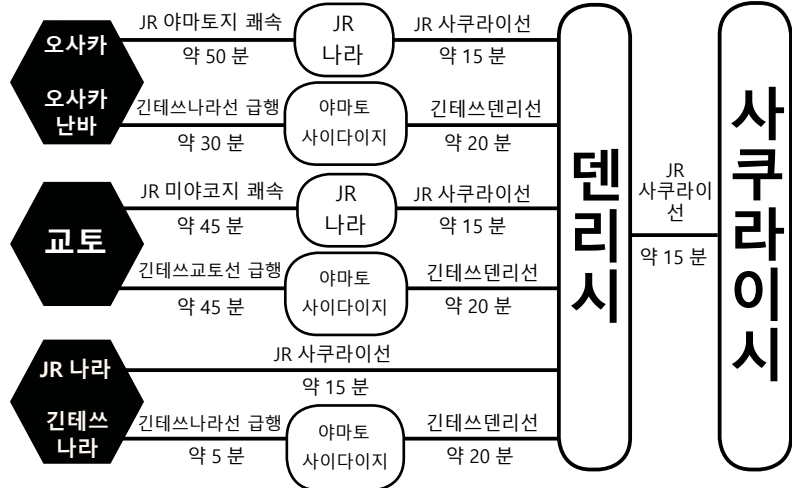
전부터 좋아했었던 사쿠라이시와 덴리시를 취재하게 되어 매우 기뻐습니  
 다. 오미와 신사를 안내 받는 매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동스러웠  
 고 마음이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또, 타코야키의 열렬한 팬으로서 '장타  
 코' 의 타코야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로제노 카빙' 은 저처럼 멋진 장소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느긋한 한  
 때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 덴리시 · 사쿠라이시



## 오시는길

전철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약 1 시간 } 덴리까지  
 교토에서 약 1 시간 20 분 }  
 나라에서 약 30 분 }  
 덴리에서 사쿠라이까지 약 20 분

##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 해주신 나라현 문화·교육·생활창조부  
 나라 역사예술문화촌 정비추진실, 덴리 대학 부속 덴리 참  
 고관, 장타코 덴리점, 오미와 신사, 로제노 카빙, 덴리시,  
 사쿠라이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 행 : 2020 년 11 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